

# 한글박물관 소장의 새로운 『규곤의측』 이본과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

백채원\*\* · 이영경\*\*\*

## 〈차 례〉

- 서론
-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측』의 서지적 특성
- 『규곤의측』 이본 간의 관계
-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규곤의측』의 새로운 이본인 한글박물관 소장본의 서지적 특성을 밝히고 『규곤의측』 이본 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 자료의 가치를 조명한 글이다. 『규곤의측』은 그동안 여러 이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한글박물관본은 아직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글박물관본은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문헌 내에 존재하고 경상 방언이 반영되어 있으며, 다른 이본과 구별되는 특유의 텍스트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규장각본, 한글박물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등의 여러 이본 간의 계통과 함께, 전혀 별개의 여성교훈서로 알려져 온 『류한당언행실록』과 『규곤의측』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규곤의측』이 다양하게 변개되어 여러 지역과 가정에서 활용되는 여성교훈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규곤의측, 규곤의측 이본, 한글 필사본, 류한당언행실록, 여성교훈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0524-20230044)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강사

\*\*\* 교신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1. 서론

본 연구는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여성 교훈서 『규곤의즉』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문헌 『규곤의즉』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규곤의즉』은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법도를 모아 서술한 순한글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청구기호: 가람古173-G99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청구기호: C02-0145 v.1), 국립중앙도서관<sup>1)</sup>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이본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글박물관 소장의 『규곤의즉』(청구기호: 한구 6882, 이하 ‘한박본’으로 약칭)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이 자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인본뿐 아니라 필사본 자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사본 자료가 그동안 적극적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필사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필사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박본 『규곤의즉』은 필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필사 목적 또한 분명하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이 책에는 방언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어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둘째, 『규곤의즉』은 이미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 문헌이므로 이본 간 비교를 통해 문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특히 한박본에는 이본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한박본의 저본이 되는 문헌을 확인함으로써, 이본 간 계통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본 가운데 한박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논함으로써 문헌 『규곤의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달하고자 한다.

셋째, 이 필사본은 다른 이본과는 구별되는 필사자 특유의 텍스트 구성으

1)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래의 소장처가 남평문씨 인수문고인 책 1종과, 본래 소장처를 알 수 없는 ‘古1576-4’의 청구 기호를 가지는 책 1종이 소장되어 있다. 두 책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전자는 ‘국중앙본1’, 후자는 ‘국중앙본2’로 칭한다.

로 저본의 내용을 수용 및 재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짧은 고전소설 「공즈동즈문답기」와 행적류 「고담역디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단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글을 함께 묶어 수록하였다기보다는 필사자가 저본을 필사하면서 저본의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보완할 내용을 추가한 성격이 강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텍스트가 필사를 거치면서 변개되고 재창출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박본 『규곤의측』의 서지적 특성과 계통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그 자료적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sup>2)</sup> 『규곤의측』의 이본 비교는 고전문학계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한글박물관본의 존재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그동안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본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본 간의 비교 연구가 한층 다채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측』의 서지적 특성

### 1) 형태서지

한박본 『규곤의측』의 책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34cm이다. 책의 표지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 앞뒤 표지에는 글자를 덧쓴 흔적이 많고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존재한다. 이 책의 권두서명은 '규곤의측'이며 한 면은 10행, 한 행은 20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서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사는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표지와 본문이 시작되는 권수면 사이에 두 장의 공격지(空隔紙)가 덧붙여 있다. 두 장의 공격지 중에서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첫 번째 공격

2) 본 연구의 중점은 한박본의 서지적 특성 및 『규곤의측』 간의 계통 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 책의 국어사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문헌이 담고 있는 국어학적 특성 또한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지의 뒷면과 두 번째 공격지의 앞면이다. 첫 번째 공격지의 뒷면에는 ‘육갑’이라는 제목하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등의 육십갑자가 쓰여 있다(그림 1의 오른쪽 면 참조). 육십갑자 아래에는 육십갑자를 다시 음양오행으로 나눈 납음(納音)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갑자와 을축 아래에는 ‘海中金’, 병인과 정묘 아래는 ‘爐中火’, 무진과 기사 아래에는 ‘大林木’ 등이 그 예다. 육십갑자가 필사된 이유는 이 책의 저술자가 여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육갑(六甲), 구구(九九), 언문, 예행(禮行)을 깊이 생각하고 익힐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필사자는 육갑에 대한 예를 보이기 위해 공격지에 육갑을 추가적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십갑자는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지식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강전섭 소장본 『규곤의측』에도 육갑과 구구단이 실려있고,<sup>4)</sup> 1797년(정조 21) 학봉 김성일의 9대손 김종수가 지은 계녀서 『여자초학』에도 육갑과 구구단(數法)이 적혀 있다.<sup>5)</sup>



[그림 1]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측』의 공격지 첫째 장의 뒷면과 둘째 장의 앞면

- 3) 처자의 도리를 언급하는 부분에 ‘아시(兒時)로 육갑 구구와 언문 너형을 심서후며(〈12b〉)라는 내용이 있다.
- 4) 김수경, 「여성교훈서 『閨闈儀則』과 <홍씨부인계녀(사)>와의 관계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231쪽.
- 5) 김종수 지음, 김한별·이현주 역주, 『여주 여자초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177~182쪽.

두 번째 공격지의 앞면에는 ‘규곤의측’이라는 제목 이외에도 여러 글자가 쓰여 있다(그림 1)의 왼쪽 면 참조). 한자를 연습한 듯한 글자들과 필사 시기로 추정되는 ‘乙卯正月廿九日’이 두 번 나타난다. 乙卯正月廿九日’ 아래에는 ‘오희라 잇딴를 당호야로 시작하는 흘려 쓴 문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는 공격지 두 장을 포함하면 이 책은 전체 1책 87장으로<sup>6)</sup>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필사 시기와 필사 지역에 대해서는 백채원(2023)에서 『규곤의측』에 실려있는 「공즈동즈문답기」를 분석하면서 논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필사 시기를 [그림 1]에 나타나는 ‘乙卯正月廿九日’이라는 표현, 「고담역딴록」에 사용된 ‘광서(光緒)라는 연호의 존재, 그리고 문헌에 사용된 언어가 19세기 말 이후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을묘년인 1915년으로 추정하였다.<sup>7)</sup> 필사 지역의 경우 경상 방언에서 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인 이중모음 ‘꺀’(ye)의 y 탈락[계집(女)<공자동자문답기4a>, 계시니라<공자동자문답기1a>], ‘꺀’의 축약[췌(骨)<공자동자문답기4a>, 보살페<규곤의측본문21b>], 순음과 ‘ㄹ’ 다음의 반모음 ‘y’ 첨가[법도(法度)<공자동자문답기4a>, 무려(問)<규곤의측본문17b>] 등을 근거로 경상 지역에서 필사된 것으로 논하였다.<sup>8)</sup> 이 책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규장각본에는 이와 같은 방언형이 거의 보이지 않으나, 한박본에는 경상 방언의 요소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9)</sup>

6) 한글박물관 홈페이지의 해제에는 1책 78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측 결과 87장임을 확인하였다.  
 7) 백채원, 「한글 필사본 고전소설 「공즈동즈문답기」의 서지·국어학적 고찰」, 『어문학』 161, 한국어문학회, 2023, 9~11쪽.  
 8) 백채원, 위의 논문, 20~21쪽.  
 9) 필사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지만 권말에 수록한 두 글의 성격을 보았을 때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즈동즈문답기」도 그렇지만 권말의 「고담역딴록」에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 대한 설명과 여러 고사들이 인용되어 있어 중국 역사 및 유교와 관련한 광범위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내용서지

『규곤의축』의 서두는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부부는 천지와 대응되며(“부부는 천지와 덕(對)라” <1a>), 부부는 모든 인륜 관계의 근본이고 부부가 화목해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도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가나 사가(私家)의 흥망성쇠가 다 부인에게 달렸기 때문에 부인은 몸을 가지는 도리, 말을 하는 도리, 시집가는 도리 등 여러 가지 도리와 법도를 익혀야 부덕(婦德)에 합도하고 가도(家道)를 이루어서 현명한 부인(哲婦)이 될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여러 도리들의 이름은 본문에서 일종의 소제목의 형식으로 다시 제시된다.

본문은 2b면부터 시작되며,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의 이름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내용을 포함한 한글박물관본의 전체 내용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축』의 전체 내용 구성

(서문) <1a>	덕직하는 도리라 <37b>
마음 잡는 도리라 <2b>	자식 기라난 법이라 <39b>
얼굴 다사리는 도리라 <3b>	첩을 거느리미 <48b>
마암 가지난 도리라 <4b>	첩이 부인을 섬기는 도리 <49a>
말씀 하는 법도라 <8b>	첩의 도리 <49b>
기거하는 도리라 <9b>	어하하는 도리라 <49b>
거처하는 법도라 <11a>	덕외 분별하는 도리라 <51b>
처주의 도리라 <12a>	너공 힘쓰난 법이라 <52b>
식집가난 네도라 <13b>	음식한 법이라 <53a>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15a>	의복하는 제도라 <54a>
부모 섬기는 도리 <21a>	치가지도라 <54b>
상네지법이라 <27a>	신사부치 및지 말나 경계라 <57a>
봉스하는 도리라 <28b>	공즈동즈문답기<61a>
동기 덕접하는 법이라 <30b>	고담역덕록<67a>
식권당 덕접하는 도리라 <35b>	(내용 없음) <81a>~<84a>
사친 덕접하는 법도라 <36b>	동방삭이 비결이라<85a>

본문에서 소재목으로 나타나는 도리의 세부 조항은 <1> 마음 잡는 도리, <2> 얼굴 다스리는 도리, <3> 마음 가지는 도리, <4> 말씀하는 법도, <5> 기거하는 도리, <6> 거처하는 법도, <7> 처자의 도리, <8> 시집가는 예도, <9> 지아비 섬기는 도리, <10> 부모 섬기는 도리, <11> 상례지법, <12> 봉사하는 도리, <13> 동기 대접하는 법, <14> 시권당 대접하는 도리, <15> 사친 대접하는 법도, <16> 대객하는 도리, <17> 자식 기르는 법, <18> 첩을 거느림에, <19> 첩이 부인을 섬기는 도리, <20> 첩의 도리,<sup>10)</sup> <21> 어하하는<sup>11)</sup> 도리, <22> 내외 분별하는 도리, <23> 여공 힘쓰는 법, <24> 음식하는 법, <25> 의복하는 제도, <26> 치가지도, <27> 무당과 불교를 믿지 말라는 경계 등 27가지이다. 이 중에서 <10>, <19>, <20>의 도리는 별도의 행 구분이 없이 앞 내용에 이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의 이름에 뚜렷한 규칙성은 없으며, ‘도리’, ‘법’, ‘법도’, ‘예도’, ‘제도’, ‘경계’ 또는 4자 구성(상례지법, 치가지도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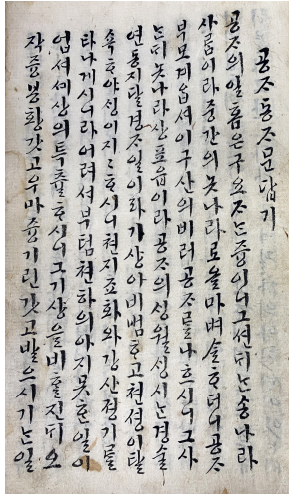
본문이 끝나면 권말에는 한박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다른 이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즈동즈문답기」와 「고담역디록」이<sup>13)</sup> 이어진다(아래 [그림 2], [그림 3] 참조). 이들은 언뜻 보았을 때는 여성의 도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곤의측』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10) <18>~<20>의 첩과 관련된 도리는 도리의 이름을 별도로 붙인 것은 아니나, 앞의 내용과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항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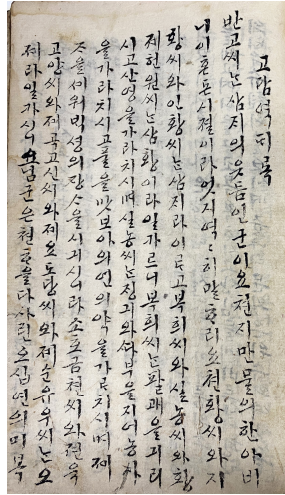
11) 어하(御下)는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함을 뜻한다. 여기서는 비복을 다스리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12) 이는 이 책의 한문본이 따로 존재하고, ‘道理’ 또는 ‘法度’ 등과 같은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없이 언해된 것은 아닐까 추정케 한다.

13) ‘고담역대록’은 ‘古談歷代錄’을 한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공즈동즈문답기」의 첫면



[그림 3] 「고담역도록」의 첫면

「공즈동즈문답기」는 공자가 길가에서 만난 다섯 살 아이와 주고받는 문답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는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 고전소설로, 선행 연구에서 이본의 종류와 그 계통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sup>14)</sup> 이는 주로 다른 소설과 합철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한박본에 실려있는 「공즈동즈문답기」는 여성 교훈서 말미에 필사되어 있다.<sup>15)</sup> 『규곤의측』이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므로 이 소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읽을거리로 여성 교훈서 말미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외적인 이유 외에, 「공즈동즈문답기」는 내용적으로도 『규곤의측』과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규곤의측』의 서두는 부부와 천지를 서로 대응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공자와 동자의 문답 내용 중에서도 부부와 천지를 대응시킨 부분이 있다. 공자가 동자에게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자 동자는 부자간은 천륜이 망극하여 비할 데가 없고, 부부는 남으로 인연하여 백년을 해로하므로 각별한 사이는 맞으나 부

14) 윤주필, 「孔子童子問答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357~396쪽; 윤주필, 「한국에서의 <공자동자문답> 전승의 분포와 그 특징」,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239~276쪽.

15) 백채원, 앞의 논문, 13쪽.



자간에 비하면 천지간과 같다고 대답한다(<65a>). 한박본의 필사자는 독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공자와 동자의 문답 내용을 끌어옴으로써 부부와 천지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의 이러한 경향은 아래에 이어지는 「고담역덕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고담역덕록」은 윤리적 규범을 충실하게 준수한 중국의 인물들을 제시한 부분으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약 13가지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야기의 첫 부분과 이것이 담고 있는 윤리적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2]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축』 말미에 필사된 「고담역덕록」의 내용과 그 주제

이야기의 첫 부분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
① 반고씨는 삼직의 으뜸 인군이요	事夫의 도리(아황, 여영) 및 효성(순임금)
② 옛덕 허윤의 안희 완씨 얼굴이 심히 누취하니	부부의 도리
③ 덩자 허론 날 너실의 드러가미	부부의 도리
④ 한빅유란 사름이 허물 잇거늘	부모 섬기는 도리
⑤ 송나라 장규의 밀학이요 그 동칭은 장함이니	자식 교육(스승을 가리는 법)
⑥ 송나라 구양슈논 여려서보름 서당의 갖다오면	자식 교육(글공부)
⑦ 뉴공작의 안희 한씨 부인이 규모 겸소호고	자식 교육(글공부)
⑧ 한나라 목용이 조고 여칭으로 사형제 서로 의탁호야	형제간 우애
⑨ 당나라 정의종의 안희 노씨 시부모를 섬기되	시부모 섬기는 도리
⑩ 당나라 최산람의 증조모 장손 부인이 나이 마나	시부모 섬기는 도리
⑪ 당나라 장공예 구세를 함기 사더니	시가 친척들을 대접하는 도리
⑫ 한나라 쇼경이 남칭호 티수들 하니	형제간 우애
⑬ 진나라 왕칭이 성품이 효도롭더니	부모 섬기는 도리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규곤의측』 말미에 실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규곤의측』 본문의 저술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훈서들은 대체로 어떤 덕목에 대해 서술할 때 원론적인 훈계 내용과 함께, 별도로 그에 대한 전범의 서사를 예시로 온전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규곤의측』의 저술자는 전범이 되는 인물의 고사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온전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술자가 요약하여 간략히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다. 그마저도 아무런 인용 없이 원론적인 도리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도리의 내용을 독자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한박본의 필사자는 도리의 내용이나 예시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례를 보완함으로써 독자가 규범을 잘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고사를 추가로 실어둔 것으로 보인다. 즉 『규곤의측』 본문은 개별적 사례를 일반화하여 원론적인 도리 위주로 서술하고 있고, 말미에 수록된 「고담역디록」에서는 일반화된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으로써 풀어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사자는 고사의 선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들의 일부는 『규곤의측』 본문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사자는 치밀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텍스트를 선정한 것이다. 예컨대 ①, ③, ⑤, ⑦, ⑧, ⑪, ⑫번째 이야기는 『규곤의측』의 본문에서 짙막하게 언급되었다. 이 이야기들이 『규곤의측』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①은 반고씨부터 三皇 五帝를 거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의 변화를 기술한 것이다.<sup>16)</sup> 이 과정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열되는데, 이

16) 『규곤의측』에는 중국의 여러 고사가 자주 인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말미에 중국 왕조에 대한 설명을 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이라면 역대 왕조의 이름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조선시대의 인식이 있었음을 고려하면[婦人當畧讀(…) 識百家姓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이덕무의 『士小節』] 이와 같은 내용이 여성 교훈서 말미에 수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에서 『규곤의측』 본문에서도 언급되는 것은 아황과 여영, 그리고 순임금이 다. 「고담역덕록」에는 ‘아황 여영 두 싸임으로 순임군을 사회 사마 천홍을 전후시니라’(<67b>)와 같이 아황과 여영이 언급되며, 『규곤의측』 본문의 지아비 섬기는 도리에도 아황과 여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19a>). 또한 「고담역덕록」에서는 순임금의 효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67b>) 『규곤의측』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25b>-<26a>).

③은 맹자에 대한 이야기다. 맹자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아내를 내쫓으려 하자,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소리도 내지 않고 눈을 낮추지 않은 맹자의 잘못이라고 하였고 이에 맹자가 반성하였다는 이야기다. 이는 『규곤의측』의 ‘지아비 섬기는 도리’에 대한 대목인 17b-18a면에도 실려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일헌 일노 보면 인가 부부의 금슬은 그 부모의게도 밋였나니라’라는 필사자의 논평이 덧붙여 있다.<sup>17)</sup> 필사자가 이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는 송나라 장규와 장함 형제를 가르친 어머니 이야기다. 『규곤의측』의 본문 ‘자식 기라난 법’에서는 자식에게 글공부를 시키되 스승에게 온전히 맡기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42b>). ⑤의 이야기는 선생이 자식을 가르치는 장면을 엿보고 이에 따라 대접함이 달라졌다는 내용이라서 『규곤의측』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자식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⑦ 역시 자식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한씨 부인은 고삼, 황연, 응담을 가루로 만들어 환을 지어서 아들들이 밤에 글을 읽다가 잠이 오면 한 개씩 먹였고, 그 결과 아들들이 勤苦하여 성공하였다. 『규곤의측』 본문의 ‘자식 기라난 법’에 환약을 지어 입에 물고 책을 읽게 하라는 내용이 나온다(<42a>).

⑧과 ⑫는 모두 형제간의 분쟁과 우애에 대한 이야기다. ⑧은 원래 형제가

17) 「고담역덕록」이 원래 있는 텍스트를 베껴 쓴 것인지, 세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필사자가 기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필사자의 논평은 필사자가 직접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사자의 논평은 앞 이야기와 한 칸을 띄우고 덧붙여 있다. 이는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앞 내용과 구별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한집에서 살았는데, 혼인 후 분가하여 재산을 나누어 살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져서 목용이 스스로를 치자 동생과 제수들이 사죄하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한 칸을 띄운 후 ‘일현 일노 보 건된 인가 형제의 불목은 그 형수 제수의게도 밋엿나니라’(<78a>)라는 필사자의 논평이 있다. 이 고사는 ‘繆彤自擿’라는 제목으로 이륜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도 실려있다. ⑫는 한나라 소경이 형제간 재산 문제를 중재하였다는 내용이다. 『번역소학』 권9, 『소학언해』 권6 등에도 관련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은 ⑧과 ⑫의 이야기는 『규곤의측』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기 디접 흐는 법’에 음식이나 의복, 전답, 재물 등을 한 부모 아래에서 살던 때처럼 내것, 네것 없이 한다면 자연히 화목해진다는 내용이 나온다(<31a>-<31b>). 그리고 예전에는 형제간에 재산을 나누는 일 없이 한집에 살았고, 혹 따로 사는 경우가 있으면 괴이하게 여겼으나 최근에는 말세가 되어서 이와 같은 풍속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있다(<31b>). 즉 ⑧, ⑫의 이야기는 형제가 다 같이 모여 살았던 예전의 풍속을 상세히 써둔 것이며, 재산과 관련된 싸움이 형제간의 우애로 원만히 해결된 예를 보여주기 위해 실어둔 것으로 보인다.

⑪은 9세대가 함께 산 당나라 장공예의 이야기다. 당 고종이 장공예에게 그 방법을 물으니 장공예가 ‘忍’자 100개를 써 주었다. 『규곤의측』의 ‘식권당 디접 흐는 도리’에 ‘장공예는 구 세를 동거 흐고’(<35b>)라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지는 않았다. 필사자가 장공예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권말에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오륜행실도』, 『이륜행실도』에도 ‘公藝書忍’이라는 관련 고사가 실려있다.

⑬은 진나라 왕생이 계모 주씨를 효성으로 섬긴 이야기다. 왕생은 부모가 병이 있으면 옷을 띠를 풀지 않았으며, 약을 직접 달여 반드시 친히 맛을 보았다. 『규곤의측』의 ‘부모 섬기 는 도리’에 효자는 옷의 띠를 풀지 않는다는 내용(<25b>), 약을 직접 달인다는 내용(<25a>-<25b>) 등이 나타난다. 『규곤의측』의 본문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서술한 것이라면 ⑬의 내용은 인물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일화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이야기들은 『규곤의측』 본문에서 제시된 도리의 직접적 예시로서, 간략히 언급된 도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여성이 도리를 내재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②, ④, ⑥, ⑨, ⑩, ⑬번째 이야기는 『규곤의측』에서 관련 인물의 이름이나 구체적 일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유교적 규범을 잘 지키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덕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3. 『규곤의측』 이본 간의 관계

3장에서는 현존하는 『규곤의측』의 이본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먼저 한글 박물관본의 계통과 저본을 밝히고, 이를 포함한 『규곤의측』 이본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곤의측』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새 자료도 함께 검토한다.

#### 1) 한글박물관본의 계통과 저본

먼저 한박본의 특징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한박본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이본을 검토한다. 현존하는 『규곤의측』의 이본은 규장각본, 존경각본, 국중도본1·2 등이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한박본이 어떤 종류의 이본과 내용 및 전체적 구성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특히 한박본에는 판독 및 전사(傳寫) 오류 사례가 빈번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저본 확인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박본은 전체 구성과 체계, 그리고 그 내용이 규장각본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두 문헌의 첫 장의 내용을 일부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가. 부부는 턴지와 더라 턴지 이신 후 만물이 나고 부부 이신 후 오류이

나느니 부즈 군신과 당유 봉우가 다 부부로서부터 나고 일가 구축과 만세 즈손이 다 부부로 말미암았느니 인륜의 으뜸이라 부뷔 화순 후의 집을 가즉이 호고 집을 가즉이 호 후□(의) □(나)라홀 다스리고 나라홀 다스린 후의 턴하□(를) □(다)스리고 평히 호느니<sup>18)</sup> <규곤의축 [규장각본]1a>

나. 부부는 천지와 디라 천지 이신 후 만물이 나고 부부 이신 후 오류이 나느니 부즈 군신과 당유 봉우가 다 부부로서부터 나고 일가 구축과 만세 즈손이 다 부부로 말미암았느니 인륜의 으뜸이라 부뷔 화순 후의 집을 가즉이 호고 집을 가즉이 호 후 나라을 다스리고 나라을 다스린 후의 천호을 다스리고 평히 호느니 <규곤의축[한박본]1a>

규장각본의 ‘턴지’와 ‘화순’, ‘턴하’는 한박본에서 각각 ‘천지’와 ‘화순’, ‘천호’로 바뀌었다. 한박본이 규장각본을 보고 필사한 후대본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언어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표기를 제외하면 두 이본의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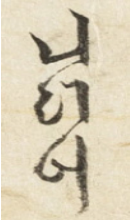
전체적 구성 역시 규장각본과 한박본이 거의 동일하다. 규장각본의 경우 부인이 지켜야 할 여러 도리의 이름이 소제목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소제목 아래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베풀고 있다. 한박본 역시 규장각본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규장각본에서 제시한 도리의 이름과 내용이 큰 변개 없이 필사되어 있다.<sup>20)</sup>

한박본의 저본이 규장각본임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는 한박본에 나타나는 판독 및 전사 오류 사례들이다. 한박본에는 규장각본의 흘려 쓴 글자를 오인하여 이를 잘못 표기한 것들이 자주 보인다. 두 문헌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대응되는 부분을 아래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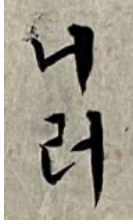
18) ‘□’는 종이가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다. 괄호 안 글자는 필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추정한 부분이다.

19) 두 이본 간의 언어 사실의 차이가 국어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준비 중에 있다.

20) 두 이본 간의 체계의 일치에 대한 내용은 3장의 2절에서 상술될 것이며 [표 3]에 자세하다.



<규장각본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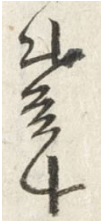


<한박본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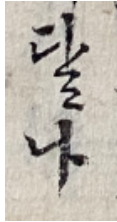
[그림 4] '늪어'와 '니러'

- (2) 가. 이 칙을 일싱 보고 늪어 <규장각본2b>
- 나. 이 칙을 일싱 보고 니러 <한박본2b>

규장각본의 '늪어'는 한박본에서 '니러'로 필사되었다. 한박본의 필사자는 '늪'자의 받침 '러'을 자음군이 아닌 하나의 음절로 판독한 것이다. '러'의 '기'자가 '기'자와 모습이 비슷하여 이를 '러'로 판독한 결과다.



<규장각본3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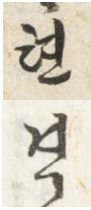


<한박본3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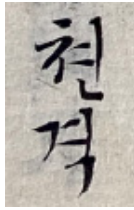
[그림 5] '다르나'와 '달나'

- (3) 가. 열동싱은 비록 적서 분의 다르나 골육의 논 호이기는 훈가지라 <규장각본39a>
- 나. 열동싱은 비록 적서 분의 달나 고륙의 난호 이기난 훈가지라 <한박본34a>

규장각본의 '다르나'는 한박본에서 '달나'로 나타난다. 한박본의 필사자는 '다르나'의 흘려쓴 '르'자를 '다'자의 받침 '르'로 보아 이를 '달나'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39a>



<한박본3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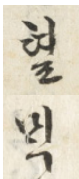
[그림 6] '현격'과 '천격'

(4) 가. 아국 풍속이 덕서분의를 현격히 하니 <규장각본3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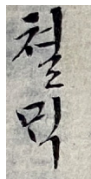
나. 아국 풍속이 적서분의를 천격히 하니 <한박본34a>

규장각본의 '현격'이 한박본에는 '천격'으로 필사되었다. 해당 부분은 골육의 정은 무섭고 적서 간의 도리(嫡庶分義)는 가벼우나 우리의 풍속이 적서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현격(懸隔)히 여기고 있으니 그러한 세태가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현'자의 초성 'ㅎ'은 '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이를 '턴격'으로 관독하여 '賤格'(천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풍속이 적서분의를 천하고 낮게 여긴다는 뜻이 되므로 이는 문맥에 맞지 않다. 특히 한박본 34b면에는 '이런 사이 엇지 분의를 현격히 하리요'에서 '현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박본의 34a면 역시 '현격'으로 필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림 6]과 같은 오기는 한박본의 필사자가 '현'을 '턴'으로 오인한 데다가 이에 구개음화까지 적용하여 '천'을 도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ㅎ'의 오관독과 구개음화의 적용이 연달아 일어난 것인데, 이처럼 추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자료 때문이다.



<규장각본35b>



<한박본31a>

[그림 7] '혈믹'과 '철믹'

(5) 가. 지아비 혼몸의셔 나 난호였거늘 괴식이 년  
호고 혈믹이 통혼 거술 <규장각본35b>

나. 지아비 혼몸의셔 난호였거늘 괴식이 년  
호고 철믹이 통혼 거술 <한박본31a>

해당 부분은 동기간의 도리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지아비와 그 동기들



은 서로 기식(氣息)이 이어져있고 ‘혈맥’(血脈)이 같으므로 우에 있게 지내라는 내용이다. 규장각본의 ‘혈맥’은 한박본에서 ‘철맥’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혈’의 초성 ‘ㅎ’을 ‘ㅌ’으로 오인하고, 이에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철맥’으로 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이 외에도 규장각본의 ‘ㅍ’자를 ‘ㅌ’로 오인하여 ‘ㅍ’이 ‘ㅌ’로 바뀌어 필사된 예가 존재한다. ‘평안치(<규장각본27b>)-령안치(<한박본24a>), ‘병폐지인(<규장각본29a>)-병례지인(<한박본25b>), ‘화평지도(<규장각본40a>)-화령지도(<한박본35a>)’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어느 한 이본(규장각본)에 나타나는 하나의 자모가 타 이본(한박본)에서 일관되게 다른 자모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한박본의 필사자가 규장각본을 보고 필사하였음을 분명히 뒷받침해준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필사 오류를 통해 한박본이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규곤의측』 이본 간의 영향 관계

다음으로 『규곤의측』 이본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전술했듯이 『규곤의측』의 이본에는 규장각본, 한박본, 국중도본1, 국중도본2 등이 있는데, 이 중 최초의 필사본은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본이다. 규장각본 『규곤의측』의 필사 시기는 ‘세지 병진 땃추 기망 안동서 지필은 돕지 아니하고 느즌 더위 심흔 등 쇠안으로 계유 써시니 내 집의 드러오는 부녀 들은 즈즈히 명심하여 효측홀지어다’라는 필사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병진 맹추 기망’(丙辰 孟秋 旣望)은 병진년 음력 7월 16일을 가리킨다. 병진년은 1736, 1796, 1856, 1916년 중 하나인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해제에서는 1796년(정조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2)</sup> 나머지 이본들

21) 규장각본의 ‘늬달니 띄워흐는 거시 식어미 혜외 아니니라’(<규장각본52b>)의 ‘혜외’(慧母이)가 한박본에서 ‘체모’(<한박본45b>)로 나타나는 예도 이와 동질적인 현상이다.

22) 언어 사실로 보아 18세기 자료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1736년인지 1796년인지는 국어학적인 고찰을 포함해서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은 언어 사실로 보아서 20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규장각본을 포함하여 『규곤의측』의 여러 이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고찰한 연구로는 김수경(2013, 2015)이 참고된다. 이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이본 중 하나는 본래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수봉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이며(본고에서는 ‘국중도본1’로 칭함), ‘경오 윤유월 초파일 종’을 통해 필사 연대를 193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 체계와 내용 구성 등을 비교하였을 때 규장각본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sup>24)</sup> 존경각본의 경우 별도의 목차가 따로 존재하고, 규범의 조항 또한 그 이름이 조금 다르며 서문에서는 부부의 윤리가 아닌 여성의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각본은 규장각본보다 후대의 것임이 논의되었다.<sup>25)</sup> 이를 정리하면 규장각본과 국중도본1이 하나의 계열로 묶이고, 존경각본은 이외는 별도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존경각본은 그 내용의 재구성이 비교적 크게 일어난 편이므로 규장각본과는 다른 계열로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규곤의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본이 존재한다(청구기호: 古1576-4, ‘국중도본2’로 칭함). 국중도본1이 『규곤의측』 내용 외에는 붙어 있는 가사작품이나 글이 없고 ‘자식 기르는 법’ 이하의 7개 항목이 소실되어 있는 반면,<sup>26)</sup> 국중도본2는 국중도본1보다 전체적 내용을 비교적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본 간 비교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국중도본2는 필사기가 남아 있지 않아 필사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언어 사실로 보았을 때 한박본 및 국중도본1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국중도본2를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이 책의 계통 또한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이본들 대다수가 규장각본과 동일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 이본들의 선후 관계는 국어사적 사실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4) 김수경(2013)에서는 국중도본1을 규장각본과 관련지었으나, 본고에서는 국중도본1이 규장각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한박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5) 국중도본1, 존경각본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김수경, 앞의 논문, 217~223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6) 김수경, 위의 논문, 216~219쪽.

이 글에서는 규장각본 계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이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전체 구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특히 한박본은 규장각본과 달리 책의 말미에 ‘공즈동즈문답기’와 ‘고담역디록’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존재 여부는 이본의 계통 확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네 이본의 구성을 비교한 내용을 아래에 표로 보인다.

[표 3] 규장각본, 한박본, 국중도본1, 국중도본2의 구성 비교

규장각본	한박본	국중도본1	국중도본2
미음 잡는 도리라	마음 잡는 도리라	미암 줍는 도리라	미암 줍는 도리라
얼굴 다스리는 도리라	얼굴 다사리는 도리라	얼골 다스리난 도리라	얼골 다사리는 도리라
미음 (가지)는 도리라	미암 가지난 도리라	미암 가지난 도리라	미암 가지는 도리라
말씀 하는 법도라	말씀 하는 법도라	말씀하난 도리라	말씀 하는 법도라
기거하는 도리라	기거하는 도리라	기거한난 도리라	기거하는 도리라
거처하는 법도라	거처하는 법도라	거처하난 녀도라	거처하는 법도라
처지의 도리라	처지의 도리라	처지의 도리라	처자의 도리라
식집가는 네도라	식집가난 네도라	식집가난 녀도라	시집가는 예도라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디아비 섬기난 도리라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부모 섬기는 도리	부모 섬기는 도리	부모 섬기는 도리	부모 섬기는 도리
상제지법이라	상제지법이라	상제지법이라	상예지법이라
봉수하는 도리라	봉수하는 도리라	봉사하는 도리라	봉수하는 도리라
동기 디접하는 법이라	동기 디접하는 법이라	동기 디접하는 법도라	동기 디접하는 법이라
식권당 디접하는 도리라	식권당 디접하는 도리라	식권당 디접하는 도리라	시권당 디접하는 도리
스친 디접 하는 법도라	사친 디접하는 법도라	사친 디접하는 법도라	스친 디접하는 법도라
디킵하는 도리라	디킵하는 도리라	디킵하난 도리라	디킵하는 도리라
즈식 기르는 법이라	자식 기라난 법이라	자식 기라는 법도라	자식 기라는 법이라

27) ‘힐쓰’ 다음에 ‘난’자를 필사자가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첩을 거느리미	첩을 거느리미	(이하 내용 결락)	첩을 거나리며
첩이 부인을 섬기는 도리	첩이 부인을 섬기는 도리		첩이 부인을 섬기난 도리
첩의 도리	첩의 도리		첩의 도리
어하흔는 도리라	어하흔는 도리라		어하흔는 도리라
늑의 분별흔는 도리라	늑의 분별흔는 도리라		늑의 분별흔난 도리라
너공 힘쓰는 법이라	너공 힘쓰난 법이라		여공 힘쓰 <sup>27)</sup> 법이라
음식하흔 법이라	음식하난 법이라		음식하흔 법이라
의복하흔 제도라	의복하흔 제도라		(없음)
치가지도라	치가지도라		치가지도라
신스부치 맛지 말나 경계라	신사부치 맛지 말나 경계라		(없음)
<b>홍부인 계녀</b>	(없음)		<b>홍부인 계녀라</b>
(필사기)	<b>공즉동즉문답기</b>		(없음)
(없음)	<b>고담역기록</b>		(없음)
(없음)	(공판)		(없음)
(없음)	<b>동방삭이 비결이라</b>		(없음)

한박본과 국중도본2는 규장각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다만 국중도본2에는 의복하는 방법과 미신에 대한 경계(‘신스부치 맛지 말나 경계라’)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다. ‘치가지도의’ 경우 전체 내용이 아닌 규장각본의 64b의 중간 이후 부분까지만 필사 내용이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국중도본2의 말미에 있는 ‘홍부인 계녀라’라는 부분이다. 이는 규장각본의 ‘홍부인 계녀’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를 통해 국중도본2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박본의 말미에 수록된 내용들이 국중도본2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박본과 국중도본2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으며, 동일한 저본이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중도본1의 경우 내용에 결락이 많아 이것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책이 규장각본인지, 한박본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박본의 필사 실수다. 한박본은 규장각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필사

실수들이 일어났다. 이와 동일한 실수가 국중도본1에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면 국중도본1의 저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6) 가. 양치질 하지 못하느니라 남의 의복 음식을 덕잇는 사름은 나모라지  
 아니하느니라 몸 가지기를 진똥이 흐려 흐면 <규곤의측[규장각본]9a-9b>
- 나. 양치질 못하느니라 몸 가지기를 진똥히 흐며 남의 의복 음식을 덕 잇는  
 스름은 나모라지 아니하느니라 <규곤의측[한박본]8a-b>
- 다. 양치랄 하지 못하난니라 몸 갖지기랄 진똥히 하매 남의 이복 음식을  
 덕 잇난 사름을 나모자리 아니하나니라 <규곤의측[국중도본1]12b>

(6가)의 규장각본에서 밑줄 친 부분, 즉 “몸 가지기를 진똥이 흐려 흐면”은 ‘덕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의복과 음식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내용 뒤에 나오지만, (6나)의 한박본에서는 그 내용이 앞에 끼어들어가 있다. 이는 한박본의 필사자가 1행을 필사하다가 실수로 1행의 필사를 마저 하지 않고 2행의 중간 이하 부분을 먼저 필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실수다. 이와 같은 필사 실수는 (6다)에서 알 수 있듯 국중도본1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확률이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국중도본1은 한박본을 보고 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본 간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종류의 이본 중 한박본과 국중도본2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며, 국중도본1은 한박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한박본을 다시 베낀 국중도본1의 존재는 『규곤의측』이 오랜 시간 동안 집안 여성들에게 널리 읽혔던 책임을 잘 보여준다. 여러 이본이 존재하고 있는 양상을 통해 당시 이 책이 여성 교육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던 면모를 관찰할 수 있다.

## 3) 『류한당언행실록』과 『규곤의측』의 관계

마지막으로 『규곤의측』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 그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문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자료는 18세기 중반에 활동하였던 류한당(柳閑堂) 권씨(생몰년 미상<sup>28</sup>)가 지었다고 알려진 송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류한당언행실록』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자료는 1780년 전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필사본 『류한당언행실록』의 ‘경자납월 덩아우스딩 서우슈표’라는 표현을 통해 현전 필사본은 1900년에 필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되었다.<sup>29)</sup>

우리는 이 『류한당언행실록』이 『규곤의측』의 한 파생본임을 밝히고자 한다.<sup>30)</sup> 즉 류한당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이 실제로는 류한당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규곤의측』을 저본으로 삼아 재창출한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류한당언행실록』의 전체적 구성은 『규곤의측』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서문, 마음 가지는 법, 용모 가지는 법, 몸 가지는 법, 말삼하는 법, 기거하는 법, 거가하는 법, 처녀의 수신하는 법, 출가하는 법, 가장 섬기는 법, 부모와 구교 섬기는 법, 자식 교육하는 법, 자부 교훈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규곤의측』의 마음 잡는 도리(첫 번째 도리)와 마음 가지는 도리(세 번째 도리)는 『류한당언행실록』에서 각각 ‘마음 가지는 법’과 ‘몸 가지는 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규곤의측』의 ‘지아비 섬기는 도리’는 『류한당언행실록』에서 ‘가장 섬기는 법’으로 바뀌는 등 도리의 이름도 한자어로 바뀌었다. 마지막의 자부 가르치는 법은 『규곤의측』에는 없던 부분이다. 이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규곤의측』에서 언급된 도리들이며 ‘마음 가지는 법’부터

28) 출생은 18세기 중엽, 사망은 1780년대 즈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29) 김옥희, 「柳閑堂 權氏의 『言行實錄』에 관한 研究」, 『한국학보』 8(2), 일지사, 1982, 50-83쪽; 이승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 - 유한당 권씨의 『언행실록』과 이순이 투갈다의 『옥중편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121-149쪽.

30) 『규곤의측』의 다른 이본들과 달리, 이 책은 비록 『규곤의측』을 저본으로 하였지만 전혀 이질적인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저자가 종교적 색채를 가미하여 새로운 저술로 완성하고자 한 결과물로 보이므로, 문헌학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이본의 범위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가장 섬기는 법’까지는 그 순서 또한 『규곤의측』과 동일하다. 『류한당언행실록』의 구성이 『규곤의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문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내용에 출입이 많은 편이다. 특히 『류한당언행실록』은 유교적 내용이 배제되고, 천주교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남이 눈에 띈다.

(7) 가. 부인네 얼굴은 굿터여 곱기를 취치 아니홀디라 췌용호고 천연호기를 위췌호느니 환아호여도 거흔 티도 업고 화열호여도 썩썩흔 고운을 썩고 단정호여도 미물흔 빗치 업서야 부인의 얼굴이라 니르느니라 <규곤의측[규장각본]4a>

나. 부인네 얼굴을 구타야 곱기를 취코져 함이 아니요 췌용하고 천연하기를 주장하나니 화열하야도 것친 태도가 업고 유순하야도 썩썩하며 단정하고도 매물한 빗이 업서야 부인의 얼굴이라 하나니라 <류한당언행실록 2a-2b>

(8) 가. 부부는 텃지와 디라 텃지 이신 후 만물이 나고 부부 이신 후 오류이 나느니 <규곤의측[규장각본]1a>

나. 부부는 텃디와 대우라 텃주가 텃디를 만드시고 텃디 잇슨 후 만물이 나고 부부 잇슨 후 오류이 낫나니 <류한당언행실록1a>

(9) 가. 행실을 고결이 호야 으시로 녹갑 구구와 언문 네힘을 심스하며 쇼호 너스서 붓치로 효힘을 너여 빅홀지니라<규곤의측[규장각본]14a-14b>

나. 행실을 고결이 하기를 배화 행할지니라 <류한당언행실록10a>

(7가)는 『규곤의측』의 얼굴 다스리는 도리 부분이다. (7가)의 ‘위췌호-’, ‘화열호-’가 (7나)에서 ‘주장하’와 ‘유순하’로 그 표현이 바뀐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책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류한당언행실록』에는 종교적인 변개가 일어나 있다. (8가)에서 천지가 있는 후에 만물이 생겨난다는 표현은 (8나)에서 천주가 천지를 만든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유

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기도 한다. (9가)는 소학, 여사서 등으로 효행을 배우라는 내용이지만 (9나)에서는 배우의 텍스트가 삭제되었다. 유교적 내용이 삭제되는 양상은 『류한당언행실록』의 다른 부분에서도 관찰된다. 『규곤의측』의 ‘시아비 섬기는 도리’에서는 주나라 문왕의 아내인 태사, 《後漢書》〈逸民傳〉에 나오는 기결(冀缺), 양홍의 처 맹광에 대한 일화 등 다양한 인물이 인용되어 있으나 『류한당언행실록』의 ‘가장 섬기는 법’에서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다. 문헌에서 유교적 색채를 최대한 빼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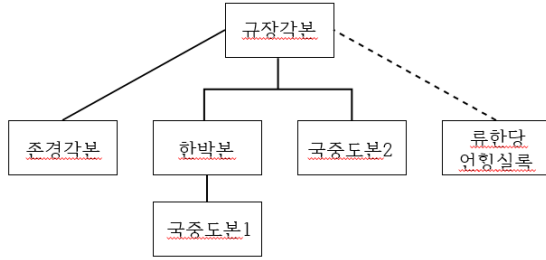
두 문헌이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류한당언행실록』의 성격을 새롭게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류한당이 ‘저술’한 것으로 보아왔으나, 실제로는 류한당이 기존의 여성교훈서를 ‘필사’하면서 천주교의 색채를 가미하여 다소의 변개를 가한 것이다. 결국 선행 연구에서 류한당의 생각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온전히 류한당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sup>31)</sup> 예컨대 선행 연구에서 『류한당언행실록』의 ‘마음 가지는 법’ 조항은 다른 여성교훈서에는 없는 항목이며, 서화적인 종교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sup>32)</sup> 하지만 이는 서학적 배경하에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교훈서 『규곤의측』을 베끼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므로 ‘마음 가지는 법’을 서학과 관련짓기 어렵다. 『류한당언행실록』은 『규곤의측』을 기반으로 재창출된 자료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장각본 『규곤의측』과 이를 저본으로 가지는 여러 이본 및 파생본을 분석하고, 그 계통을 확인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며 보이면 아래와 같다.

31) 온전한 류한당만의 생각과 관점은 『규곤의측』과 『류한당언행실록』을 비교하여 『류한당언행실록』에만 나타나는 내용을 살핌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류한당언행실록』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32) 김옥희, 위의논문, 65쪽.





[그림 8] 『규곤의측』 이본 간의 계통 관계

한박본과 국중도본1, 국중도본2는 모두 근원적으로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한박본과 국중도본2는 규장각본을 충실히 반영한 편이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변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박본은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의 지역 방언인 경상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책의 말미에 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읽을거리를 다양하게 실어두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중도본1은 이 한박본을 재필사한 책이며, 중간 이하의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존경각본과 『류한당언형실록』은 저본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책이다. 특히 『류한당언형실록』은 전체 구성이 대폭 축소되었고 내용적 변개 또한 강하게 일어났으며, 종교적 변용이 크게 일어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규곤의측』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저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림 8]에서는 그 관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 4.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새로운 자료인 한글박물관본 『규곤의측』의 서지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규곤의측』 이본 간의 계통과 영향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박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박본은 저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방언형, 특히 경상 지역의 방언형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필사 오류는 이 책의 저본

이 규장각본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권말에 실려있는 「공조동조문답기」와 「고담역덕록」은 다른 이본에는 없는 부분으로, 필사자 특유의 텍스트 구성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한박본의 발굴로 인해 국중도본1과 규장각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박본을 매개로 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박본을 시작으로 하여 『규곤의측』 전체의 이본 간의 계통을 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별개의 여성교훈서로 알려졌던 『류한당언행실록』이 『규곤의측』의 파생본임도 확인하였다. 이에 『류한당언행실록』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규곤의측』이 다양하게 변개되어 여러 지역과 가정에서 활용되는 여성교훈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여성교훈서가 필사를 거치면서 변개되고 재창출되는 과정과 그 양상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들을 통한 여성 교육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본 간의 국어학적 사실의 비교를 통해 언어 사실의 변화 양상 또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규장각 소장 『규곤의축』(청구기호: 가람古173-G999).  
 한글박물관 소장 『규곤의축』(청구기호: 한구 688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규곤의축』(청구기호 없음. 남평문씨 인수문고 구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규곤의축』(청구기호: 古1576-4).  
 『유한당언행실록』(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2007)에 수록).

### 2. 단행본

- 김중수 지음, 김한별·이현주 역주, 『역주 여자초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 기독교 고전 세계화 시리즈』 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 3. 논문

- 김수경, 「여성교훈서 『閨閻儀則』과 <홍씨부인계녀(사)>와의 관계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학회, 2013, 213-249쪽.  
 \_\_\_\_\_, 「『閨閻儀則』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한글 여성교훈서의 한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학회, 2015, 185-216쪽.  
 김옥희, 「柳閑堂 權氏의 「言行實錄」에 관한 研究」, 『한국학보』 8(2), 일지사, 1982, 50-83쪽.  
 백채원, 「한글 필사본 고전소설 「공중동죽문답기」의 서지·국어학적 고찰」, 『어문학』 161, 한국어문학회, 2023, 5-47쪽.  
 유주필, 「한국에서의 <공자동자문답> 전승의 분포와 그 특징」,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239-276쪽.  
 \_\_\_\_\_, 「孔子童子問答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357-396쪽.  
 이승희,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과 여성의 의식 변화에 대한 일고찰 - 유한당 권씨의 『언행실록』과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학회, 2013, 121-149쪽.  
 이영경·이선영, 「한글 여성교훈서 『여학』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규장각』 6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239-264쪽.  
 조연숙, 「『유한당언행실록』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5, 365-396쪽.

## A Study on the New Version of 『Gyugonuicheuk』 Collected by National Hangeul Museum and its Material Value

Baek, Chae-won\* · Lee, Yeong-gyeong\*\*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value of this literature by revealing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version of 『Gyugonuicheuk』 held in National Hangeul Museum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sions of 『Gyugonuicheok』. 『Gyugonuicheok』 has been known to exist in several different versions, but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version has not yet been fully know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version has special material value in that clues that can be used to estimate the time of transcription exist within the literature, the Gyeongsang dialect is reflected, and it shows a unique text composition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versions.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confirm the system between several versions, including the versions of Kyujanggak, National Hangeul Museum,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newly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Ryuhandangunhaengsillok』 and 『Gyugonuicheuk』, which were known as completely separate women's instruction book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Gyugonuicheuk』 was modified in various ways and had the status of a women's discipline book used in various regions and homes.

---

\* First Author, Lecturer,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ey words:** Gyugonucheok, the version of Gyugonucheok, Hangeul Manuscripts, Ryuhandangunhaengsillok, a book for women's discipline